



국방연구원 한·불 무기체계세미나 개최



韓·佛간에 무기체계 획득정책 및 연구분석 방법론의 교류를 통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주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 자료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분야의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불간의 세미나가 지난 10월 20일 국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제11차 한·불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국방부가 무기체계 관련 세미나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격년제로 국방분야의 연구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술 활동의 국

제교류를 추구하여 왔으나 미국에 한정되어 그 폭이 넓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세미나는 국방발전을 위한 노력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 양국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발전의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정공 민간항공기 제작사업 진출

현대 정공이 러시아의 야크社와 합작하여 민간항공기 제작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 11월 4일 兩社는 현대야크항공(株)의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6년부터 생산을 목표로 야크사에서는 항공기 설계 개발 제작기술을 제공하고 현대정공에서는 판매망 구축, 개발비투자 항공기 생산 공장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약 5억원이 투자된다.

현대야크항공은 1차적으로 야크사가 개발한 민간용 중소형 항공기를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이어 후속 신기종 1백50인승 중형항공기, 30인승 단거리 여객기를 공동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한다. (賢)

(주)은성사 SPEACTRA 헬멧 개발

(주)은성사는 미국의 첨단 소재 회사인 Allied Signal社와 공동기술로 최첨단 소재인 SPECTRA를 이용하여 고경량, 고방탄 헬멧 개발에 착수한지 2년여만에 차세대 헬멧이라고 불리는 KEVLAR보다도 우수한 신소재인 SPECTRA 헬멧 개발에 성공했다.

SPECTRA소재는 미국의 Allied Signal사와 네덜란드의 다이니마 등 전세계적으로 2~3개사만이 생산하고 있는 폴리에틸렌계의 최첨단 소재로 가볍고, 인장강도가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주)은성사(대표 박보국)는 미국 국방규격으로 제조 납품하는 국제입찰에 참가 세계유수의 업체들을 제치고 수주하여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대량 수출의 길을 확보하였다. (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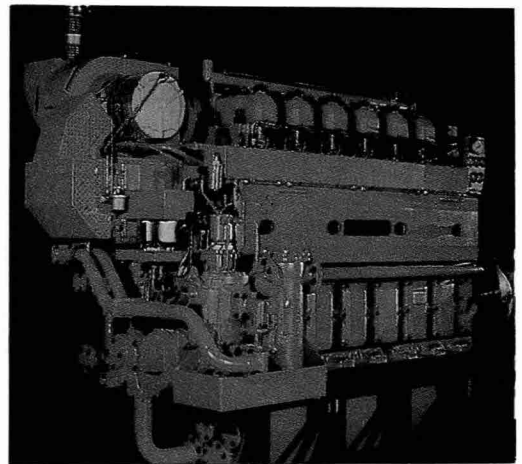
쌍용 중공업 선박 엔진 유럽지역 수출

쌍용 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5백~2천 마력급 선박용 엔진 50대를 기술 선진 유럽지역에 직수출하여 우리의 입지와 경제활로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중형 디젤엔진 전문생산업체인 쌍용중공업(대표 金基鎬)은 얼마전 스위스 뉴솔저디젤社와 유럽지역 선박엔진용 엔진과 관련된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수출에 나섰다.

이에 앞서 쌍용중공업은 지난 10월 일본 쓰네이시조선소와 7백만불의 선박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월 필리핀으로부터 3백만불 규모의 7MW급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또한 국내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라 올해 선박용 디젤엔진 부문에서만 수주금액이 약 1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賢)





제25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 북한 핵개발등 군사적 위협 단호하게 공동 대처 -



제25차 韓·美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11월 4일 서울에서 권영해(權寧海) 국방부장관과 애스핀(LES, Aspin) 미국 국방부장관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개발등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공동 대처하겠다는 결론을 얻음으로써 전통적인 韓·美 우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SCM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은 양국이 실시여부를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등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훈련을 중단 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앞서 제1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이양호(李養鎬), 살리 캐시빌리 韓·美 합참의장은 한반도 연합 방위체제에 관해 대북관계에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어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를 위해 양측은 美 태평양 사령부예하 7함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귀속시키는 것과 한반도 위기 고조시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전쟁을 억제하며, 유사시 美증원전력 전개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갈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SCM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미국은 올해보다 22%증액된 2억6천8백만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보다 낮은 18%수준인 2억6천만불 지원에 합의하였다.

또한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것과, Win-Win(2개 전장동시 승리) 전략에 따른 미군의 군사력 구조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조정할것임을 약속했으며, 한·미 연합사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94년 12월 1일까지 이양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2단계 계획을 유보하는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국 국방부 장관은 남북 대결구조가 종식되어야 한·미간의 공동 이익이 보장되고 亞·太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賢)

제7회 화랑대 국제학술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軍 발전을 위한 군사연구와 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2년마다 개최되는 화랑대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2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관련학계와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金正憲 학교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제적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다시금 국권 수호와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하며, 국제화 추세에 걸맞도록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의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대우중공업(주) 운영석 부회장의 「군의 역할과 국방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 美 메릴랜드大 퀘스터 교수의 「냉전체제 이후 아시아의 군비 통제와 방위」에 관한 기조



연설이 있었다.

또한 광과학의 군사적 응용, 차세대 무기 설계 기술, 군용폭약의 안전과 응용, 미래 안보 환경의 평가와 전망, 한국군의 정통성, 과학적 관리기법의 군사적 응용 등을 주제로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총 30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賢)

서울 엔지니어링 항공기 소재 인증서 획득

서울 엔지니어링은 美 벨 헬리콥터社로부터 알뉴미늄 및 마그네슘 주조품 공급을 위한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항공기용 경합금 주조품은 고도의 제조기술과 고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로, 서울 엔지니어링(대표 오세철)은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공업 선진국에 연간 200만불을 수출하여 그 기술을 입증받은 바 있으며, 美의 록히드社와 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공급 물량의 확충과 응용기술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賢)

